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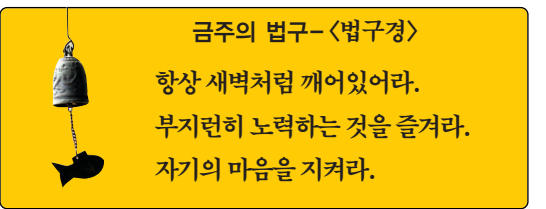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0월 8일) · 주간

제 1071호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현대불교

韓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사업 '잔걸음'

등재추진위, 11월 20일 순천시 2차 국제학술회의

조계종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이 순항 중이다. 기초 자료 수집과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가 올해에만 3번에 걸쳐 진행 중이며 내년 등재신청서 작성과 2017년 등재 관련 실사 등도 착실히 준비 중이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등재추진위)는 1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사업 경과와 2차 국제학술회의 일정을 밝혔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선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7개 사찰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8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24일에는 광주 마곡사에서 '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9월 4일에는 '한국 전통산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에 대한 국내 석학들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 발제자로는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가 '한국 전통 산사의 세계유산적 의의'를 주제 발표한다. 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입지와 경관을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진입 경로와 공간 구성에서도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것이 1,500여년의 불교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국장 석운 스님은 "한국의 전통산사"는 역사성과 예술성, 가람배치의 원형이 잘 남아 있고, 현재까지도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이 잘 계승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의 등재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재추진위는 2017년까지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2차 국제학술회의 역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과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열린다. 불교 유산이 주제인 만큼 중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유산들의 역사적 배경, 보편적 가치 등 재 후 현황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한국 역사 속의 불교문화의 위상'이 기초 강연을 진행하며, 구오 레이 중국 하남성 정주시 문화유산 자치행정부 행정사무관, 노부코 이나바 일본 쓰쿠바대 교수, 트란 딘 탄 베트남 문화유산부 부국장 등이 주요 발제자로 나서 자국의 세계유산 산 등재 과정과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의 학술회의 통해서

현재 기초 자료 수집 중

2018년 등재 최종 목표

내년 등재 신청과정 거쳐

2017년 등재 실사 진행

또한 한국 발제자로는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가 '한국 전통 산사의 세계유산적 의의'를 주제 발표한다.

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입지와 경관을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진입 경로와 공간 구성에서도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것이 1,500여년의 불교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국장 석운 스님은 "한국의 전통산사"는 역사성과 예술성, 가람배치의 원형이 잘 남아 있고, 현재까지도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이 잘 계승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의 등재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재추진위는 2017년까지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2차 국제학술회의 역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빼빼로보다 가래떡을 드세요

11월 11일이 언제부터인지 '빼빼로 데이'가 됐다. 친구와 연인, 직장 선배들에게 빼빼로를 선물하는 것이 마치 관례와 풍습처럼 됐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가래떡 데이)'이기도 하다. 우리 쌀과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는 날이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지원)는 매년 11월 11일을 맞아 '우리 쌀 소비 촉진 운동-우리 떡하니 사랑합시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행정국장 등목 스님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 등이 동참해 인사들을 찾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가래떡과 인절미 등을 나눠주며 우리 쌀을 알렸다. 글·사진=신성민 기자

아시아 불교문화 한자리에 모인다

태고종 20일 잠실서 제1회 아시아 불교문화축제

영산재 유네스코 등재

6주년 기념 행사 일한

영산재·코미디 공연 등

화려한 무대 공연 '눈길'

국민위해 전석 무료로

아시아 불교문화를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11월 20일 오후 3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서 개최하는 제 1회 세계문화유산 아시아 불교문화축제가 바로 그것. 이번 행사는 특히 태고종 영산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6주년을 맞아 광복 70주년과 세계평화, 남북통일 및 국제태안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행사 당일에는 아시아 7개국을

순회하는 세계문화유산 영산재를 바탕으로, '영산재, 아리랑을 만나 하늘을 열다'란 주제로 2016년 새 희망을 염원하는 영산재 스토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병찬 씨로 사회로 진행되는 행사는 총 3부로 나뉜다. 1부는 아담법석의 오프닝과 댄서 트 김성환 씨의 인생스토리를 듣는 자리와 기념식, 2부는 세계문화유산 영산재 공연과 옷차 대한민국(추석의 코미디쇼-베일집, 지영옥, 김의환 등 출연), 3부는 해외불교국가 초청공연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가수 김연자(孝 公恩), 국악인 김영민씨(희심곡), 아리랑합창단 아담법석, 태극기 퍼포먼스 등으로 무대를 맞아 광복 70주년과 세계평화, 남북통일 및 국제태안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행사 당일에는 아시아 7개국을

자리에서는 한국, 중국, 태국, 티베트 등 4개국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며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식전 행사로는 원하는 이들에 한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정작가인 지영빈 감독이 제3명의 사진작가들과 함께 부모님 및 가족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행사 실무를 담당하는 태고종 문화사회부장 성민 스님은 "이번 행사에는 영산재보존회를 비롯해 중국, 태국, 티베트 스님 등이 참가해 자국의 무형문화를 중심으로 불교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는 단순한 불교축제가 아닌 유네스코에 등재된 영산재를 기본으로 최선의 장소 및 최고의 대중 예술인을 통해 국민 브랜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아시아불교문화 축제의 장으로서 태고종이 아심차게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이어질 것"이라고 산재보존회의 영산재 공연과 태국, 티베트, 중국 등의 문화공연이다. 이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민족통일 위한 연대 강화”

KCRP·조종협, 9~10일 금강산서 종교인 모임

南北 종교인 200명 참석
선언문 채택... 통일 기원
日 우경화 저지 노력 다짐
금강산 오르며 우의 다져

기가 마련되고 있는 시기"라며 "7.4공동성명 등 북한합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자"고 말했다.

이들 종교인들은 이번 모임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들의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했다. 남북종교인들은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실천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7.4 공동성명과 남북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그에 기초해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남북 사이의 잦은 접촉과 대화, 교류와 통일 회합이

남북 종교계 대표들이 한데 모여 평화 통일을 위한 연대를 확인했다. 또한 일본 우경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남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 회장 자승, 이하 KCRP)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강지영, 이하 조종협)는 11월 9일부터 10



남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강산의 금강산호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개최했다.

일까지 금강산의 금강산호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남측 KCRP 회원 150명과 북측 조종협 회원 50명이 참석했다. 남북종교인들이 대규모로 한데 모여 모임을 가진 것이다.

이날 KCRP 대표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강산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상징"이라며 "종교인들은 평화를 소중히 가꾸고, 끝까지 인내하며 희생해 통일의 씨앗을 싹틔우자"고 당부했다.

강지영 조종협 협회장은 "북과 남 사이에 친척상봉과 노동자축 구대회 등 관계개선의 전환적 계

선언 이행으로 지향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의 신앙과 교단을 존중하면서 애국애족의 마음과 남북선언에 기초해 종교인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의 우경화 저지에도 함께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남북종교인들은 "위안부 문제 인정 등 과거사 청산을 회피하고 독도 강탈을 시도하는 일본의 행위에 광분한다"면서 "군국주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의 행위를 국제사회와 연대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 이후에는 남북종교인들은 금강산 신계사와 구룡연, 삼일포 등을 함께 거닐며 친목을 다졌다. 신성민 기자

해종 언론 관련 특별 결의문

- 다음 -

최근 중단 관련 현안에 대해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이를 마치 사실인양 왜곡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태는 해종을 넘어 훼손 수준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매체의 행태를 보면 불교 언론을 표방하는 것이 맞는지, 불자들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일부의 문제를 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중단에 비방적인 인사들의 발언만 편향적으로 다루는 등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은 뒤로 한 채 중단과 승가에 대한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중단과 승가의 화합을 파할 목적으로 종련 투쟁까지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부처님의 자비정신과 민주적 관용으로 이들을 대해 왔고 인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악의적인 이들의 행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묵묵히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중도들마저 격정과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인 인터넷 매체의 선동과 이에 편승한 일부 해종행위자들로 인해 중도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중단의 존엄과 정통성마저 훼손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일동은 무분별한 비방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부 악성 인터넷 매체들이 더 이상 중단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중수교(扶宗懺悔)의 결연한 의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왜곡·편향보도로 중단과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고 있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훼손, 악성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며, 중단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 중단은 악성 매체의 해종, 훼손 행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중앙총회, 총무원, 교구본사 등이 참여하는 해종언론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중단 집행부와 교구본·말사 및 전체 중도들은 해종언론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즉각 실행한다.
- 결의문 채택과 동시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중앙총회 출입과 취재를 금지한다.

불기 2559년 1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일동